

# 하늘운동장

손 영 란

며칠전 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아안은 우리 진별이가 소학교 5학년과정을 마치고 초급중학교에 입학했다. 더 높아진 수준의 학과목들을 제대로 따라서겠는지... 자식을 잘 키우고싶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하면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한결 듬직해진 딸의 행동과 몸가짐, 큰 아이티를 내느라고 말투까지도 어른스럽게 번지는 자식을 보니 믿음이 갔다.

진별이가 첫 등교를 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나는 초인종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성급히 마중나갔다.

《우리 진별이 왔나요? 그래 중학교에 가니 좋던가요?》

다 큰 자식이라도 아기때처럼 품에 안고 애무해주고싶은것이 어머니의 심정인지 나는 저도 모르게 딸애를 품어안았다.

《예. 어머니, 중학교는 소학교보다 더 좋아요. 운동장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우리 학급 동무들은 하늘운동장이라고 하면서 공부만 끝나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요. 하늘운동장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산골마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라고 세워주셨대요.》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딸애의 꿈과 함께 나의 소중한 추억도 갖는 나의 모교, 심심산골 광산아이들을 위해 제일 큰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우에 운동장을 펼쳐주셨으니 위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 꿈엔들 잊을수 있었던가.

나는 그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딸애와 함께 펼쳐놓고싶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의 이야기이다.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기 산간마을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새벽 흠도로를 달려오느라 먼지가 뽀얗게 오른 승용차들이 한그루 은행나무가 서있는 곳에 조용히 멎어섰다.

전쟁의 재더미를 털고 일어서느라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이때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수백리 멀고먼 밤길을 달리시여 여기 산골광산을 찾아오실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더우기 어려운 조건만 내세우며 생산이 중

단되다싶이 한 이곳 광산이 걱정되시여 밤길을 달려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일먼저 건설중에 있는 학교부터 찾아주시실줄은 수행한 일군들도 미처 생각 못했었다.

아빠트 한동 지을 부지조차 변변히 없는 심심산골이어서 산중턱을 두단으로 깎아 두개의 2층 교사를 짓고있는것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에는 바다와도 같이 깊고깊은 사랑의 세계가 흐르고있었다.

금시라도 여기저기 돌밖에 없는 산등성이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아버지원수님!》하고 넘어질듯 달려와 안기는 모습이며 공부를 끝마친 아이들이 비탈이 급한 경사지를 따라 쏟아지듯 달려나와 운동장아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그려보시느라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저 산등성이를 다 깎아서라도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주고싶으셨다.

산등성이를 깎아 터를 닦고 건설하는 뒤교사에서 앞교사에 이르기까지 운동장을 만들 거리를 가늠해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는 두메산골이다보니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만 한 곳도 변변히 없다고 하시면서 아래에 짓는 학교지붕을 평지붕으로 만들어주어 아이들이 그우에서 풍도 차고 달리기도 하면서 마음껏 뛰놀도록 하자고 은정깊은 말씀들을 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에 격정의 파도가 넘쳐흘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땅이 아닌 저 지붕우에도 운동장을 펼쳐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파사로운 그 사랑, 그 위대한 후대관앞에 머리가 숙어졌다.

해방후 연필문제를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시는 첫 회의의 의정으로 제기하시였고 전후에는 모든 것이 폐허로 된 재더미속에서도 아이들의 학교부터 먼저 짓자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고 서야 그 누가 이런 꿈같은 일을 생각이나 할수 있단 말인가.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다. 그러나 세월과

세월을 넘어 그 사랑의 이야기는 후대와 후대를 걸쳐 세상에 전해지고있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져주신 그 사랑의 터전이 있어 오늘 우리 나라는 교육의 현대화와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배움의 나라를 펼쳐주고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끝없는 감격에 겨워 딸애에게 말했다.

《진별아, 넌 우리 수령님들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딸애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어머니, 난 공부를 잘해 인공지구위성을 만드는 박사가 될래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인공지

구위성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공장도 건설하고 광산도 세워 경애하는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릴래요.》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철없다고 생각했던 자식의 가슴에 이렇듯 큰 꿈이 들어있는줄 미처 몰랐던것이다.

꿈, 꿈은 소중하다. 더우기 번영하는 내 조국의 미래를 안고 사는 아이들의 꿈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우리 아이들의 꿈은 허황한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꽃피워줄 위대한 교육체제가 있다.

나는 자라나는 딸애의 모습에서 그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